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子의 범위

金 鍾 錫*

• 目 次 •

- | | |
|--------------------|--------------------|
| I. 서론 | IV. 門人錄의 문제점과 學統弟子 |
| II. 『陶山及門諸賢錄』의 체제 | V. 寒岡 鄭述의 師承관계 |
| III. 『陶山及門諸賢錄』의 분석 | VI. 결론 : 退溪學統의 전개 |

I. 서론

퇴계문하의 인물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學統弟子의 범위 설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어디까지를 실질적인 퇴계의 제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學統弟子란 단지 퇴계라는 인물을 흠모하거나 사숙한 제자가 아닌 퇴계의 학문정신과 퇴계학의 주요 이론을 자신의 학문적 바탕으로 계승한 제자를 의미한다. 학파의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은 단순히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퇴계에서 시작된 학맥의 흐름과 전개를 검토하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며, 역으로 퇴계학 자체에 내포된 다양한 측면과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학자(士)이면서 동시에 정치가(大夫)인 관계로 학문적 주장과 당론적 주장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파 내부에서의 위상이나 자기 학파의 형성에 있어서도 학문적 연관성보다는 정치적 역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어떤 학자의 學統弟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되고 그 학문이 누구에게 계승되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애매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6·7세기부터 저술되기 시작한 각종 師友錄 혹은 淵源錄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저술들은 道統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道學淵源錄이라는 데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 저술 역시 그 著者(編者)가 어쩔 수 없이 당시 정치적 현실 가운데 발 딛고 있던 사람이었던 까닭에, 그 내용이 자기가 속한 정치집단 위주의 주관적 서술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한 예가 朴世采의 『東儒師友錄』이다. 朴世采는 당쟁시대의

* 영남대학교 강사

학자로서 李珥·成渾의 文廟從祀 문제와 효종 승하시 服制문제로 남인들과 대립하였던 인물인데, 그가 찬술한 『東儒師友錄』은 상세함과 분량면에서 退溪·南冥학과 보다는 栗谷·牛溪학과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론의 입장에서 牛溪門人을 위하여 다른 어떤 학파보다도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특징이다. 李會滄의 『道學淵源錄』은 더욱 심하다. 퇴계·남명문인보다 울곡·우계문인에 치중하였을 뿐 아니라 퇴을 이후에는 宋時烈, 奇正鎮, 崔益鉉 계열의 문인들로 주로 채워졌으며 金誠一, 柳成龍의 후학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姜敷錫의 『典故大方』 역시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朝鮮儒賢淵源圖』의 저자 尹榮善의 표현처럼 “동인이 저술하면 서인이 소략해지고 서인이 붓을 잡으면 동인이 깎여나가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¹⁾ 이런 측면에서 『朝鮮儒賢淵源圖』는 비교적 공정한 배려를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淵源傳統을 기술함에 있어 이른바 起源先生(派祖)의 후손들이 내놓은 投稿에 의존함으로써 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²⁾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각 학파별로 가능한 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학문적 관점에서 學統弟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退溪門人錄인 『陶山及門諸賢錄』의 분석을 통하여 退溪의 學統弟子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門人錄 형식의 자료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退溪門下의 반대함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門人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 놓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인록에 나타나 있는 등문사실에 관한 내용을 해당 門人들의 개인문집에 기술되어 있는 師承關係 기사와 비교하고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退溪 學統弟子의 범위를 최대한 압축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退溪學脈의 전개 양상을 계보화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많은 자료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가피하게 계량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고, 기존 연구결과 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끝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미진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차차로 채워 나갈 것이다.

1) 我東文獻局於黨階, 從以孤陋, 東著西漏西筆東削. 『朝鮮儒賢淵源圖』 「自敘」.

2) 『朝鮮儒賢淵源圖』의 편집원칙 가운데 중요한 引用資料에 대해서 “各家의 淵源錄에 의거하고, 先生 후손들의 投稿를 모은 것”(凡例)이라 하였다. 이 원칙은 어떤 학파 가운데서도 당시에 주도적인 계파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원칙이다. 퇴계학파의 경우 퇴계 사후부터 문집간행을 두고 시작된 미묘한 계파간의 입장 차이가 숙종대에 이르면 李德弘이 기록한 『心經質疑』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李德弘 계열과 金誠一 계열 간에 심각한 대립 양상을 노증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후손들의 投稿를 받았다면, 投稿의 내용은 후손들에 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파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朝鮮儒賢淵源圖』의 淵源傳統圖에 보면 퇴계의 학통을 이은 사람은 鄭述, 金誠一, 柳成龍, 朴光前의 네 계파로서 趙穆, 李德弘같은 사람은 빠져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栗谷학과에 비해 退溪학파의 淵源傳統圖가 훨씬 소략함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II. 『陶山及門諸賢錄』의 체제

퇴계문인록 작성에 처음 착수한 사람은 학봉계열의 학통을 계승한 蒼雪齋 權斗經(1654~1726)으로서, 그는 100여명의 문인록을 작성하여 『溪門諸子錄』이라 이름하였다.³⁾ 그후 퇴계의 6대손인 靑壁 李守淵(1693~1748)이 60여명을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문인록의 체계가 갖추어졌고 이름을 『陶山及門諸賢錄』이라 하였다. 山後 李守恒(1695~1768)이 다시 10여명을 추가하고, 선생의 『言行錄』과 『文集』 가운데서 선생의 가르침, 주장, 왕복문자 그리고 문인들의 輓, 祭, 疏 등을 붙였는데, 주자문인록인 『理學通錄』의 예를 따랐다. 퇴계의 9대손 廣瀨 李野淳(1755~1831)이 다시 수십명을 추가함으로써 260여명이 되었다. 이상을 四家本이라 하여 문인록 편집, 출간 시의 기본자료로 하였다. 또한 甲寅本 간행시(1854)에도 四家本에 포함되지 않은 약간 명이 추가되었다.

초간본인 甲寅本 『陶山及門諸賢錄』을 도산서원에서 간행할 때 정한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전체적인 순서는 退溪가 편찬한 『理學通錄』의 예를 따른다.
- 연령순으로 배열한다.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舊本 가운데 權斗經이 정리한 문인록은 李湛으로부터 시작하고 李守淵이 정리한 문인록은 鄭之雲으로부터 시작하는데, 鄭之雲이 李湛보다 연상이므로 李守淵本을 따른다.
- 舊本에는 연령순에 어긋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고치지 않는다.
- 첫머리에 「序文」을 두는 것이 통례이지만, 선생문집과 연행록 간행시에 「序文」을 쓰지 않았으므로 이 예에 따라 序文을 두지 않는다.
- 舊本에는 문인들의 輓詩·祭文 가운데 겨우 3분지1 밖에 入錄되지 않았다. 따라서 빠진 부분을 모두 이번에 入錄한다.
- 성명만 있는 경우도 그대로 실는다.
- 선생의 子姪을 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舊本에 따른다.
- 사실에 있어서 소략한 경우는 實錄 자료를 채록하여 보충한다.
- 權斗經본의 「跋文」과 李守恒본의 「凡例」가 있었지만 四家本 총합의 취지에 따라 실지 않는다.
- 登門實蹟은 『全書』, 輓·祭·錄, 諸賢의 手墨에서 취한다. 또한 이렇게 하고 나서 포함되지 못한 문인 약간 명은 지금 추가하여 續錄으로 한다.⁴⁾

이렇게 해서 완성된 『陶山及門諸賢錄』은 5권2책 혹은 5권4책으로 간행되었

3) 「凡例」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權斗經과는 평생의 道伴이었던 密菴 李栽(1657~1730)도 權斗經이 작성한 문인록 초고에 朴淳, 曹好益, 金樂春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학통분류의 어려움과 애매함에 대해 토로하였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문제점은 처음 문인록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密菴集』, 卷14, 「跋陶山及門諸子錄」.

4) 『陶山及門諸賢錄』, 「凡例」.

다. 5) 내용은 먼저 凡例, 目錄, 退溪의 「自銘」, 奇大升의 「後跋」, 趙穆의 「言行總錄」을 수록하였으며, 이어서 1권에서 5권까지 모두 309명의 門人에 대한 姓名, 字, 號, 本貫, 居住地, 生年, 退溪와의 관계, 官歷을 비롯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서 退溪와의 사제관계를 뒷받침하는 書·詩·輓·祭·錄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놓았다.

Ⅲ. 『陶山及門諸賢錄』의 분석

『陶山及門諸賢錄』은 퇴계문하에 출입하였던 16·7세기 유림집단의 구성과 그들의 생애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퇴계학파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게 해준다. 이 문인록은 학문활동 뿐만 아니고 관료로서의 정치적 업적에 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결과를 보면, 문인록 등재 인물 가운데 大提學을 지낸 사람이 10명이고 相臣을 지낸 사람이 10명이며 諡號를 받은 사람이 37명으로 파악되었다.⁶⁾

그 외에도 등재 인물 가운데 근 80명에 달하는 인물들이 書院 혹은 祠에 배향되었다. 혹자는 한 학자의 문인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書院이나 祠에 배향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느 학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모두 진정한 의미의 退溪弟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고는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退溪 學統弟子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문인록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퇴계문하의 구성 성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문인록에 등재된 인물들을 성씨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姓氏別 門人數〉

姓(本貫)	門人數	姓氏數	門人數小計
李(眞城)	30	1	30
李(永川)	14	1	14
權(安東)	13	1	13

5) 초간본인 갑인본은 5권2책인데 후에 속간되면서 5권4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계명대 한문학회에서 영인한 판본은 전자에 해당되고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판본은 후자에 해당된다. 두 가지 판본은 그 내용에 있어서 거의 전부 일치하지만, (부록 〈退溪門人 師承關係圖表〉 말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문인표기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가 발견된다.

6) 丁淳睦, 『退溪評傳』(서울: 지식산업사, 1987), p.138.

琴(奉化)	11	1	11
金(安東)	10	1	10
金(義城)	9	1	9
金(光山)	7	1	7
尹(海平)·鄭(淸州)·李(全州)·朴(咸陽)·洪(南陽)	5	5	25
朴(密陽)·具(綾州)·李(延安)·曹(昌寧)	4	4	16
金(光州)·卞(密陽)·柳(豐山)·南(宜寧)·裴(興海)· 朴(潘南)·金(順天)·金(慶州)·許(金海)·許(陽川)	3	10	30
(너무 많은 관계로 열거 생략함)	2	22	44
(")	1	72	72
本貫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李(?)·朴(?)·金(?)·洪 (?)·申(?)·崔(?)	28	—	28
計	—	120	309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성씨는 역시 退溪家門인 眞城 李氏 가문이다.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退溪 子姪이 문인록에 많이 포함된 까닭일 것이다. 다음으로 艮齋 李德弘 가문인 永川 李氏, 松巖 權好文 가문인 安東 權氏, 惺惺齋 琴蘭秀 가문인 奉化 琴氏, 晚翠 金士元 가문인 安東金氏, 鶴峯 金誠一 가문인 義城金氏, 雪月堂 金富倫 가문인 光山金氏가 단일 성씨로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성씨수가 120가지 이상이므로 다른 문인록과 비교해 볼 때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퇴계문하로 모여들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는 퇴계학의 지역적 영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퇴계학과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표 2 : 거주지별 門人數〉

居住地	門人數	地域數	門人數小計
禮安	56	1	56
京(서울)	49	1	49
安東	46	1	46
榮川	12	1	12
醴泉	10	1	10
星州	6	1	6
善山·永川	5	2	10

豊基	4	1	4
寧海·義城·海南·玄風·密陽	3	5	15
坡州·湖南·龍宮·大丘·忠州	2	5	10
江陵·京→安東·高靈·高陽·廣州·光州·軍威·杞溪·寶城·奉化·泗川·山陰·山淸·尙州·順天·順興·新寧·牙山·安德·安東→醴泉·安山·安義·陽根·龍宮→安東·龍仁·原州·宜寧·長興·昌原·昌平·靑松·淸州·漆原·咸安·咸昌·湖西·和順	1	37	37
거주지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54	—	54
計	—	56	309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면 퇴계문하의 인물들은 향리인 禮安과 安東지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학파가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편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문인도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퇴계가 출사한 이후 관직에 있었던 기간을 통산하면 약 14년 10개월이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⁷⁾ 따라서 서울에 머무는 기간 동안 결코 적지 않는 인물들이 그 문하에 출입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른바 近畿 退溪學派가 형성될 수 있었던 토양이 이들 在京門人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榮川·醴泉·星州·善山·永川·豊基·寧海·義城 등 安東과 가까운 영남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山淸·咸安·昌原 등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영남전역에 걸쳐있고, 소수이지만 江原·湖南·湖西지방에까지 이르므로 거의 전국적 분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퇴계의 학문적 명성과 위상에 걸맞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제관계의 형태에 관해서 분석해 보자. 사제관계의 형태는 특히 學統弟子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퇴계와 얼마나 긴밀한 학문적 관계를 유지하였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데 『陶山及門諸賢錄』에는 퇴계와의 학문관계를 기술하는 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사용한 용어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이 문제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전통사회에서의 학문적 교류라는 것이 현대와 같이 전문성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인격적 만남을 중시한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거기다가 문인록 편찬자들이 門人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7) 權五鳳, 『예던길』(우신출판사, 1988), p.261.

필자는 무리를 무릅쓰고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된 인물들의 주변적 정황을 참고하여, 용어 자체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즉 受業, 受學, 遊門, 登門, 入門, 就門, 贊見, 從學, 師事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상당한 정도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가지면서 학문적 전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퇴계의 學統이 전수되었다면 이러한 부류의 인물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다음에는 拜謁, 往來, 出入, 論辨, 質疑, 講質, 書質, 往復書翰 등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일부 학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의례적이거나 한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의 그룹과는 차이가 인정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예컨대 “전혜에 따라”(盧守愼), “모신지 10여일만에 퇴계 下世”(朴濟), “(퇴계가) 글을 써 줌”(具贊祿), “(퇴계에게) 원고 교정을 받음”(周博), “陶山에 머무름”(朴枝華), “(퇴계의) 칭찬을 받음”(李克承)과 같은 이 유를 내세워 문인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앞의 두 그룹에 비교해서 학문 전수의 집중성 면에서 그 강도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퇴계문인록에 등재된 인물들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3 : 사제관계 형태별 門人數〉

유형	師弟關係 형태	門人數	비율(%)
A	受業, 受學, 遊門, 登門, 入門, 就門, 贊見, 從學, 師事	157	50.8
B	拜謁, 往來, 出入, 論辨, 質疑, 講質, 書質, 往復書翰	49	15.9
C	기타	26	8.4
D	형태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77	24.9
計	—	309	100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問目과 같이 집중적인 학문적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록 한시적인 質疑나 書質이라 해도 遊門이나 從學에 비교해서 학문적 의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學統弟子의 범위를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문제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의 분석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확실한 학문적 전수관계라 할 수 있는 A유형에 속하는 인물들은 문인록에 등재된 309명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157명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 A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은 모두 學統弟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단언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다. 특히 문인록 3, 4, 5권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들이 대거 A유형에 포함된 것은 그들의 학술적 공적이 많거나 퇴계문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켰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제관계의 형태를 확인할만한 문집을 비롯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인록 편찬자들도 기본적으로 참고한 것이 문집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문집에 전혀 다르게 진술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드물긴 하지만, 오히려 B유형의 집단에서 더욱 긴밀한 사제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IV. 門人錄의 문제점과 學統弟子

學統弟子의 범위를 설정하는 일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로서 경솔하게 붓을 놀릴 사항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는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입장은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퇴계를 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오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와 같은 작업을 시도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가 범위 설정을 시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試論에 불과하며 추후 연구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우리는 위에서 『陶山及門諸賢錄』이 예안,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6·7세기 퇴계학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문인록이란 기본적으로 학문적 수수관계를 근거로 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지면의 안배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 성공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점은 전통학문에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퇴계문인록이 안고 있는 또다른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門人 범위에 대한 지나친 확대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사제관계의 특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문인록에 넣기 어려운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문인록 편찬자들의 퇴계에 대한 과도한 숭모의식, 세력확장을 추구하는 집단심리, 현실적인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어떤 면에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한계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류가 당시 문인록 편찬자들이 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기술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앞에서 인용한 초간본 간행원칙에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퇴계와의 사제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들을 본인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입문사실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형식적인 안부편지나 輓·祭·錄 등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다. 의 의례적인 문안이나 輓·祭·錄이 사제관계를 보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은 당사자들의 문집에서 발견되는 전혀 다른 언급에서 확인된다. 또한 성명만 있는 경우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시킨 것이나, 퇴계의 子姪을 대거 문인록에 포함시킨 것도 문인 개념을 애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⁸⁾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書·軌·祭·錄 이외에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과도하게 확대된 문인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문인 가운데 학술적 업적이 뚜렷하고 퇴계와의 관계가 긴밀한 인물에 대해서는 學統弟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일차적으로 『陶山及門諸賢錄』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개인문집에서 傳記資料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총 309명의 등재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108명의 문집을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傳記資料가 없는 10명을 제외한 98명의 문집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⁹⁾ 傳記資料에는 行狀, 家狀, 年譜, 墓誌銘, 墓碣銘, 諡狀, 神道碑銘, 遺事, 行錄, 行蹟 등이 해당된다. 여러 종류의 傳記資料가 있는 문집의 경우에는 서술태도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行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물론 行狀을 포함하여 이러한 종류의 傳記資料들이 공통적으로 당사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서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술내용이 갖는 자료로서의 가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그 내용 가운데서 퇴계와의 관련되는 부분, 특히 어떤 형태로든 퇴계와 학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언급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서술되어 있는지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¹⁰⁾

분석 방법은 우선 <표 3>에서 A유형에 속하는 157명의 인물을 따로 분류하여, 이들의 門人錄에 나타난 사승관계 기사와 傳記資料에 나타난 師承관계 기사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 가운데에는 퇴계와의 학문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홀

8) 子姪을 문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도 가족과 문인을 구분하는 의식이 있었음을 이른바 寒旅是非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寒旅是非의 핵심은 張顯光이 鄭述에 대해서 스스로를 門人이라고 생각했는가 姪婿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점인데, 이러한 시비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가족과 문인을 구분하였다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退溪의 子姪이 家學의 훈도를 입었다는 것과 문인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단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寒旅是非에 관해서는 權延雄, “檜淵及門諸賢錄 小考”를 참고할 것)

9) 필자는 문집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신문화연구원, 서울대규장각,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 계명대도서관 등에 소장된 韓書를 조사하였고, 그의 민족문화추진회, 경인문화사, 아세아문화사, 안동대퇴계연구소 등에서 영인 발간한 韓國文集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발굴의 문집이 더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조사된 傳記資料는 국제퇴계학회 경북지부에서 '95년~'98년 4년에 걸쳐 필자를 포함하여 연인원 40명의 필진이 참여하여 번역하였고, 그 결과는 『退溪學研究』 15~18집으로 간행되었다.

10) 분석결과는 본서 자료편(退溪門人 師承關係圖表)에서 맨 우측에 있는 '個人文集所載師承關係' 부분에 정리되어 있다. 이 부분은 지면상 핵심적인 표현 부분만을 뽑아서 옮겨놓은 것이므로 전후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해당 자료 전체를 보아야 한다.

하게 다루어져 있거나 심지어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29. 朴淳, 30. 權大器, 84. 權春蘭, 91. 金沔, 139. 宋福基, 142. 許籥, 278. 李陽元(번호는 문인록 등재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29. 朴淳

먼저 徐敬德에게 배우고, 中年에 退溪에게 師事함. 往復論議가 있었음. 成渾, 李珥와 막역한 관계였음. (門人錄)

徐敬德에게 受業함. 1575년 좌의정으로서 徐敬德의 증직을 요청함. 死後 花潭서원에 배향됨. 退溪師事에 대해서는 언급없음. (行狀: 後學 李選 撰)

30. 權大器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 登門하였음. (門人錄)

등문사실에 대해서 언급없음. (行錄: 子 權宇 撰)

84. 權春蘭

먼저 具鳳齡에게 師事함. 후에 退溪에게 從學함. (門人錄)

14세에 具鳳齡에게 受業함. “柏潭門下에서 학문정진은 權春蘭”이라는 말이 있었음. 柏潭이 죽었을 때 喪禮를 周悉히 함. 일찍이 退溪에게 請學한 적 있음. (行狀: 柳台佐 撰)

91. 金沔

弱冠에 退溪에게 從學함. 寒岡과 사귀. (門人錄)

寒岡과 막역하게 사귀. 退溪에게 從學했다는 언급 없음. (行狀: 尹宜舉 撰)

139. 宋福基

먼저 朴承任에게 배움. 후에 退溪에 遊門함. (門人錄)

退溪문하에 遊門했다는 언급 없음. (墓碣銘: 金應祖 撰)

142. 許籥

일찍이 퇴계문하에 遊門함. (門人錄)

遊門사실에 대해 언급 없음. (年譜)

278. 李陽元

李仲虎에게 배우다가 退溪에게 登門함. 鄭逵와 도의교를 맺음. (門人錄)

학업은 스스로 이룸. 어려서 李仲虎의 문하에서 공부함. 退溪門下에 登門했다는 언급 없음. (行狀: 女壻 成泳 撰)

위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경우에는 퇴계와의 학문적 관계에 관해 언급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다른 스승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비중으로 다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본인을 중심으로 사승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 이런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들을 퇴계의 學統弟子의 범위에 넣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B유형에 속하는 49명의 인물중 傳記資料에서는 오히려 퇴계의 사승관계가 긴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 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3.李楨, 15.朴承任, 83.金士元이다.

3. 李楨

처음에는 宋麟壽에게 受業함. 榮川군수時에 陶山에서 退溪를 拜謁함. (門人錄)

처음에는 宋麟壽에게 師事함. 그후 退溪를 師事하였음. 慶州에 있을 때 매년 拜謁하였고, 전후 수십 년간 편지가 없는 달이 없었음. 의문이 생기면 반드시 質疑하였음. (行狀: 鄭斗謹 撰)

15. 朴承任

論語, 朱子書에 관해 退溪에게 質疑하고 인가받음. 啓蒙傳疑를 깊이 연구함. (門人錄)

退溪를 拜謁, 質疑함. 啓蒙傳疑에 정통함. 晦齋·退溪 양현을 학문의 모범으로 함. (行狀: 門人 金中淸 撰)

83. 金士元

경신년(22세)에 拜謁, 質疑함. 退溪가 죽었을 때 居喪함. (門人錄)

경신년에 退溪를 陶山에서 拜謁하고 受業을 청함. 退溪의 죽음에 3년동안 居喪함. 退溪에게 왕래 受學한 기간이 10년이나 지속됨. (行狀: 李象靖 撰)

이들의 행장에는 퇴계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제관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록 문인록에는 이들이 B유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필자는 A그룹에 포함시켜도 무관하다고 본다. 이러한 추론은 문집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집이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실록이나 제삼자의 문집 등 다른 종류의 자료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필자는 전통사회에 있어서 문집 간행이 갖는 의미와 지금 우리의 목표가 學統弟子의 범위 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집이 있는 인물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도 대체적인 범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A유형에 해당하는 인물 가운데 29.朴淳, 30.權大器, 84.權春蘭, 91.金沔, 139.宋福基, 142.許籟, 278.李陽元을 제외하고, 3.李楨, 15.朴承任, 83.金士元을 포함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李楨, 5.崔應龍, 8.韓脩, 10.韓胤明, 12.李咸亨, 13.許忠吉, 14.黃俊良, 15.朴承任, 16.張壽禧, 17.金生溟, 19.黃應奎, 20.李叔樸, 21.金德龍, 22.李元承, 25.琴輔, 26.吳守盈, 27.金克一, 28.孫英濟, 32.朴承倫, 33.金字宏, 34.裴紳, 35.金富仁, 36.金富弼, 37.金富信, 38.金富儀, 39.金富倫, 41.趙穆, 42.金八元, 43.金樂春, 44.金德賜, 48.具鳳齡, 49.金就礪, 50.鄭琢, 51.琴應夾, 52.朴光前, 54.南彥經, 55.金守一, 57.朴愼, 58.琴蘭秀, 59.閔應祺, 63.權好文, 64.鄭惟一, 65.李中立, 68.裴三益, 69.權文海, 70.文緯世, 73.李應進, 74.尹根壽, 76.金命元, 77.徐嶸, 78.金誠一, 79.柳仲淹, 80.鄭崑壽, 81.柳雲龍, 83.金士元, 85.金功, 87.琴應璩, 88.吳灑, 94.李命弘, 95.李福弘, 96.李德弘, 97.柳成龍, 98.申濤, 99.申演, 100.禹性傳, 101.宋言愼, 102.金孝元, 103.朴漸, 104.丁胤禧, 105.李堯臣, 106.金箕報, 107.李敬中, 108.南致利, 110.曹光益, 111.曹好益, 112.金悌甲, 113.鄭士誠, 114.金晬, 115.李養中, 116.趙振, 117.李愈, 118.李憲, 119.琴轡, 120.李應, 121.李國弼, 122.李光承, 123.尹剛中, 124.尹欽中, 125.尹端中, 126.南彥紀, 127.金澤龍, 128.李容, 129.沈喜壽, 130.梁子徵, 132.邊永清, 133.金堧, 134.金圻, 135.柳根, 138.金隆, 140.申湜, 143.權宇, 144.朴養, 145.金泰廷, 146.白見龍, 147.成洛, 148.洪胖, 149.琴義筍, 150.琴悌筍, 151.張謹, 153.南弼文, 155.金希禹, 156.李淳, 162.金壽恢, 165.安霽, 166.琴鳳瑞, 167.孫興禮, 173.鄭允良, 174.盧遂, 176.具贊福, 179.全纘, 180.崔德秀, 181.申暹, 184.權景龍, 185.權東美, 207.李純仁, 211.金守愚, 214.李士愿, 217.李善承, 239.李僞, 240.曹¹¹⁾, 242.李庭楡, 243.李逢春, 247.李完, 251.李宓, 252.李憑, 254.李寯, 255.李寯, 256.李寯, 257.李冲, 264.李詠道, 265.裴漸, 267.許士廉, 270.李閔樸, 271.金廷憲, 272.李宗仁, 274.任鼎臣, 275.李衍樸, 276.琴應商, 279.權義叔, 282.徐仁元, 302.裴三近, 303.權嘻, 307.李仁福. (총153명)

이렇게 하여 153명의 인물이 선정되었다. 이 선정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 제점을 절감하게 되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선정을 함에 있어서 문인록이나 전기자료 편찬자의 주관적 서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점은 필자가 다른 방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편찬자의 서술자세가 당시의 현실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둘째,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인록 편찬 당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본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제관계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36.金富弼, 49.金就礪, 100.禹性傳 등의 경우, 퇴계가 이들에게 보낸 편지의 분량이나 그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학문적 논의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퇴계문하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도 문집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반대로 姓名 혹은 姓名만 적어놓고 遊門, 受業 등으로 기록하여 놓은 경우는 학문적인 업적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연구자가 마음대로 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셋째, 입문사실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별도로 연구자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11) 『陶山及門諸賢錄』에 姓名만 있고 名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로 黃俊良과 鄭述가 있다. 黃俊良의 경우, 그의 行狀에는 퇴계에게 受業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行狀을 지은 사람이 바로 퇴계 자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내용과 별개로 연구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鄭述의 경우, 문인록의 기록은 B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장에도 退溪, 南冥, 德溪 吳健, 大谷 成運 등에게 두루 배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도 연구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鄭述는 퇴계문하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므로 별도로 다룰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153명을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인원을 전부 學統弟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다. 결국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이와 같이 확대된 문인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압축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통사회에서 학문토론의 주요 수단이 편지였다는 점에 착안하면 퇴계가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수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집에 있는 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편지란 원래 통신수단이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편지할 일이 그만큼 많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편지 수와 그 사람과의 친밀도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가까이 있지 않아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편지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柳成龍의 경우 4통(共覽을 합하면 9통)에 불과한데, 피상적으로 보면 이점은 그가 퇴계문하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 가지는 趙穆, 李德弘을 비롯해서 누구보다도 퇴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퇴계가 보낸 편지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퇴계 자신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환로에서 보냈고, 문인들도 현관이든 미관이든 입신을 하여 陶山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편지 쓸 일은 많았을 것이다. 퇴계가 보낸 편지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학문적 논의를 하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學統弟子가 반드시 편지 수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해도 學統弟子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편지의 수를 확인하는 것은 한 가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선정된 153명의 인물들을 퇴계가 보낸 편지 수(共覽 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¹²⁾

12) 『退溪文集』에 있는 문인별 편지 수는 權五鳳, 「陶門諸子便覽」을 참고함.

〈표 4 : 편지數별 門人數〉

편지 수	일련번호 및 성명	문인수	비율(%)
100통 이상	3.李楨, 41.趙穆, 64.鄭惟一.	3	3.5
51~99 통	14.黃俊良, 39.金富倫, 48.具鳳齡, 49.金就礪, 58.琴蘭秀, 96.李德弘, 247.李完.	7	8.1
41~50 통	36.金富弼, 51.琴應夾.	2	2.3
31~40 통	79.柳仲淹, 81.柳雲龍, 100.禹性傳, 181.申暹, 252.李憑.	5	5.8
21~30 통	38.金富儀, 63.權好文, 78.金誠一, 180.崔德秀, 254.李寯, 255.李審.	6	7.0
11~20 통	15.朴承任, 22.李元承, 28.孫英濟, 42.金八元, 50.鄭琢, 68.裴三益, 76.金命元, 83.金士元, 87.琴應璠, 113.鄭士誠, 116.趙振, 121.李國弼.	12	14.0
6~10 통	5.崔應龍, 8.韓脩, 12.李咸亨, 20.李叔樑, 35.金富仁, 54.南彥經, 97.柳成龍, 124.尹欽中, 148.洪胖, 149.琴義筍.	10	11.6
1~5 통	16.張壽禧, 25.琴輔, 26.吳守盈, 27.金克一, 33.金字宏, 37.金富信, 44.金德鷗, 55.金守一, 57.朴愼, 59.閔應祺, 74.尹根壽, 80.鄭崑壽, 85.金功, 94.李命弘, 101.宋言愼, 103.朴漸, 104.丁胤禧, 106.金箕報, 108.南致利, 115.李養中, 118.李憲, 123.尹剛中, 125.尹端中, 126.南彥紀, 127.金澤龍, 134.金圻, 138.金隆, 143.權宇, 145.金泰廷, 150.琴梯筍, 153.南弼文, 155.金希禹, 156.李淳, 166.琴鳳瑞, 184.權景龍, 211.金守愚, 242.李庭檜, 243.李逢春, 256.李寅, 257.李沖, 267.許士廉.	41	47.7
計	—	86	100

위 표에서 보면, 퇴계로부터 최소한 1통 이상의 편지라도 받은 사람은 153명 가운데 86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번거로워서 도표화하지 않았지만 1~5 통의 편지를 받은 41명 가운데 1통이 20명, 2통이 10명으로 한 두 통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30명이나 된다는 얘기이다. 한 두 통의 편지는 학문적인 논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안부편지나 일처리를 위한 편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어떤 학문적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잡자면 어느 정도가 될까? 물론 이것을 길으로 드러나는 편지 수를 가지고 결정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거듭 밝혔듯이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므로 일단 그 범위를 6통 이상의 편지를 받은 인물로 한정한다면 다시 45명으로 압축된다.

그리고 다시 이 45명 가운데서 퇴계의 子姪인 247.李完, 252.李憑, 254.李寧, 255.李壽 4명은 제외하기로 한다. 子姪을 제자의 범주에 넣는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 네 사람의 경우에는 문집이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학문적 업적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인물은 총 41명이 되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李楨, 5.崔應龍, 8.韓脩, 12.李威亨, 14.黃俊良, 15.朴承任, 20.李叔樸, 22.李元承, 28.孫英濟, 35.金富仁, 36.金富弼, 38.金富儀, 39.金富倫, 41.趙穆, 42.金八元, 48.具鳳齡, 49.金就礪, 50.鄭琢, 51.琴應夾, 54.南彥經, 58.琴蘭秀, 63.權好文, 64.鄭惟一, 68.裴三益, 76.金命元, 78.金誠一, 79.柳仲淹, 81.柳雲龍, 83.金士元, 87.琴應璩, 96.李德弘, 97.柳成龍, 100.禹性傳, 113.鄭士誠, 116.趙振, 121.李國弼, 124.尹欽中, 148.洪胖, 149.琴義筍, 180.崔德秀, 181.申暹. (총41명)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마땅히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 인물이 제외되었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문적 접근은 주어진 자료의 바탕 위에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막연한 느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제시한 원칙을 적용했을 때 이와 같은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자가 시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관점에서 퇴계 學統弟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퇴계와의 사제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추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더 결정적인 자료가 발견되면 바뀔 수도 있으므로 특히 후손되는 분들의 오해가 없기 바란다.

V. 寒岡 鄭述의 師承관계

일반적으로 鄭述은 퇴계의 주요 문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위의 41명에는 제외되어 있다. 그 이유는 『陶山及門諸賢錄』에 본래 “拜謁”로 기록되어 있어서 B유형으로 분류되었을 뿐 아니라, 傳記資料에서도 퇴계와의 배타적 사제관계를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편지 수도 6통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따

라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조건들만 본다면 學統弟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다른 여러 자료에서는 鄭述가 17·8세기 近畿퇴계학파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데, 蔡濟恭(1720~1799)이 星湖 李瀼의 「墓碣銘」에서 李瀼의 학통연원을 '李滉→鄭述→許穆→李瀼'으로 설정한 것이 한 예이다.¹³⁾ 그러므로 단순히 외형적 조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鄭述 외에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鄭述는 이미 공론화되었고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이 기회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陶山及門諸賢錄』에는 鄭述의 사승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열세살에 德溪 吳健에게 執贖하였다.
- 또 曹南冥, 成大谷의 문하에서 問業하였다.
- 계해년(1563)에 退溪에서 선생(퇴계)을 뵈고 『心經』에 관해 질문하였다. 선생은 영재임을 칭찬하였다. 그 후에 往來, 講質하니 깊이 의견이 합치되었다.
- (1573년 조정에 나아갔을 때) 선조께서 "너의 스승 李滉과 曹植 두 사람의 기상과 학문은 어떠하나?"고 물으셨다. 대답하기를, "李滉은 학덕과 기국이 혼후하고 공부가 순숙하며, 曹植은 才氣가 호매하고 우뚝하게 서서 홀로 실행하나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寒岡行狀」에 기술된 사승관계 부분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德溪 吳健이 本州의 향교를 맡아 있었는데 선생(鄭述)은 찾아가 受業하였다. ...다른 한 사람과 함께 『周易』을 배웠는데, 德溪는 "鄭生은 스스로 정밀하게 이해하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鄭生을 스승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하였다.
- 계해년(1563) 봄에 退溪 李선생을 배알하고 『心經』에 관해 질문하였다. ...退溪는 인하여 吳德溪에게 편지를 보내어 지극히 칭찬하면서 영재를 얻은 것을 축하하고 후일 大儒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후로는 직접 왕래하였을 뿐 아니라 편지를 올려 질문하는 것이 이어졌다.
- 병인년(1566)에 南冥 曹植 선생을 배알하니, 曹植 선생은 "네가 出處에 대하여 대략 소견이 있으니 내가 진심으로 許與한다. 선비와 군자의 大節은 오직 出處에 있다." 하였다. 선생(鄭述)도 曹植 선생을 칭양하여 "천 길 절벽 같은 기상이 있다." 하였다.
- 또 大谷 成運을 찾아가 배알하였다.
- (川谷서원 원장으로 추대되었을 때) 퇴계선생이 편집한 『朱子書節要』를 가지고 그 나는 권수에 따라 별도의 목록을 붙였으며...

13) 但念吾道自有統緒, 退溪我東夫子也, 以其道而傳寒岡, 寒岡以其道而傳眉叟, 先生私淑於眉叟者, 學眉叟而以接夫退溪之緒, 後之學者, 知斯門之嫡嫡相乘, 有不誣者, 然後庶幾不迷於趣向. 『星湖集』, 「墓碣銘」.

- (1573년 선조가 학행이 뛰어난 선비를 천거하도록 했을 때) 東岡 金宇顒이 “鄭述는 학문이 通明하여 일찍이 李滉에게 從學하였으며, 또 일찍이 曹植의 문하에 往來하였습니다...” 하였다.
- 선조가 인용하여 묻기를 “너는 李滉과 曹植을 스승으로 섬겼는가?” 하니, 선생은 대답하기를 “臣은 두 사람의 문하에 出入하여 請問, 質疑한 적은 있으나 經傳을 가지고 受業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 (선조가 퇴계·남명의 기상과 학문에 관해 물었을 때) “李滉은 德器가 혼후하고 실천이 독실하며 공부가 순숙하여 학문의 단계가 분명한 반면, 曹植은 器局이 준정하고 才氣가 호매하여 초연히 스스로 깨달아서 우뚝이 서서 홀로 행합니다.” 하였다.
- 退陶문하에 들어가 淵源이 있는 학문을 듣고 歸宿할 바가 있음을 알았으며, 높은 風度を 南冥에게서 傳習하고 고상한 취미를 大谷에게서 이어받아 자신의 기개와 지조에 바탕으로 삼음이 또한 많았다.
- 우리나라에서 직접 접한 사람으로는 退溪를 표준으로 삼았고, 宋나라 儒者중에 大成한 분으로는 晦庵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마음을 제제하고 몸을 다스리며 집안에 거처하고 관청에 있으며 군주를 섬기고 백성을 대하는 것을 한결같이 두 선생을 법으로 삼았다.
- (從遊하던 사람으로는) 金宇顒과 나이가 서로 비슷하고 거주하는 곳이 가까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어울려서 사귀는 도가 물처럼 간격이 없었다. …南冥에게는 높은 風度を 추앙하고 退溪에게는 正脈을 귀속시킨 것은 평소 두 사람(寒岡·東岡)이 서로 의논하여 정한 말씀이었다. …가까운 고을에 있어서는 金沔, 朴槿, 郭越이 가장 추종하며 학문을 강론하던 분들이었다. …鄭仁弘도 처음에는 정직한 선비로 이름이 났으므로 선생도 평소에 자못 許與하였으나, …노년에 이르러서는 선현을 헐뜯고 비방하여 이르지 못한 바가 없었으므로 선생은 마침내 그와 절교하였다.

행장을 쓴 사람은 姪婿이자 門人인 張顯光으로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鄭述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南冥門人錄에도 사승관계 자료로 바로 이 行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남명측에서 보아도 비교적 공정하게 쓰여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⁴⁾ 위 인용부분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鄭述는 자신이 퇴계와 남명 중 누구에게 전적으로 소속된 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請問, 質疑한 적은 있으나 經傳을 가지고 受業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 그점을 의미한다. 퇴계가 吳健에게 훌륭한 제자를 얻은 것을 축하한다고 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吳健의 門人이라고 하는 편이 무난할지도 모른다.¹⁵⁾

둘째, 退陶문하에서 淵源이 있는 학문을 듣고 歸宿할 바가 있음을 알았다는 부

14) 『南冥集』, 「師友錄」, 鄭寒岡文穆公篇.

15) 왕조실록에 있는 鄭述의 「卒記」에도 “어려서는 德溪 吳健을 스승으로 모셨고, 겸하여 退溪와 南冥의 문하에 드나들었다”고 되어있다. (광해 12년 1월 5일條)

분과 우리나라에서는 退溪를 표준으로 삼고 중국에서는 朱子를 모범으로 삼았다. 는 부분을 보면, 적어도 성리학 이론에 있어서는 퇴계의 이론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은 “南冥에게는 높은 風度を 추앙하고 退溪에게는 正脈을 귀속시켰다”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남명에게서는 풍도와 기국을 본받았고 학문적 정맥은 퇴계에게서 찾았다는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鄭述가 가깝게 교류하던 인사들은 金宇顛, 金沔, 朴暉, 郭越 등 南冥의 영향권 안에 있던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鄭述가 “하늘이 다하도록 사모하고 특별히 흠모한다”고 했던 金宇顛은 南冥의 사위인 金行의 집안으로 장기간 인물로 南冥과는 특히 가까웠다. 이는 星州라고 하는 지리적 요인이 컸겠지만 어쨌든 鄭述의 정서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鄭仁弘과의 절교가 남명학파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반적으로 鄭述는 남명의 풍도와 기국에 친화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때, 필자는 적어도 ‘학설상의 계통’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鄭述는 퇴계학통을 계승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 鄭述는 24세 시 南冥을 배알한 후 한 통의 여답서도 남아있지 않지만, 퇴계집에는 3통의 問目을 포함해서 6통의 답서가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⁶⁾ 問目이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것인데, 특히 鄭述가 퇴계에게 올린 問目的 내용은 전부 家禮에 관한 것으로¹⁷⁾ 鄭述 자신이 후일 대표적인 예학가가 된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의의가 결코 적지 않다.

또 한 가지 참고로 언급할 것은 寒岡門人錄의 편술방식이다. 寒岡門人錄은 철저하게 退溪門人錄을 모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鄭述의 학문이 退溪의 嫡統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⁸⁾ 이미 언급하였듯이 門人錄의 편술방식이라는 것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부응하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는 않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南冥이 鄭述를 처음 대면했을 때 한 “선비와 군자의 大節은 오직 出處에 있다”는 말처럼, 鄭述가 南冥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出處의 방도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여기에 鄭述는 큰 감명을 받았고, 지리적으로도 南冥門人들과 가까이 살았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위기에 어울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통사회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이론전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 관련되는 종합적인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鄭述의 삶을 살

16) 寒岡文集에는 한 통의 上退溪書가 있고 上南冥書는 없다. 그러나 退溪文集에 6통의 答書가 있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上書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 『退溪集』, 卷39, 「答鄭道可問目」外 참조.

18) 『寒岡全書』, 附錄, 「檜淵及門諸賢錄」凡例 참조.

아가는 인생의 교훈은 南冥으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南冥에게 問目은 올리지 않았지만, 사제관계를 판단할 때 한 가지 기준이 되는 祭文은 南冥을 위하여 썼다. 전통적으로 輓·祭·錄이라 해서 祭文을 사제관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보지만, 이 경우는 단순히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길게 확대하여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鄭述의 경우 28세 시에 退溪가 下世하고 30세 시에 南冥이 下世하였는데, 退溪가 下世한 그 해 11월에 모친상을 탈상하였기 때문에 12월의 退溪訃告에 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¹⁹⁾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祭文의 유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다소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결국 이렇기 때문에 鄭述을 퇴계문인으로 편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鄭述을 퇴계와 남명 양현 가운데 누구의 제자라는 식으로 한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그 특징적인 측면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鄭述의 전반적인 기질은 南冥을 존경하였고 그의 주자학 이론은 退溪를 계승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학통'의 범위 안에서 퇴계문인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당위적으로 말하면 退溪門人錄에 등재되어 있는 309명의 문인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學統弟子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계량적 방법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대한 실제에 가까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므로 후일의 과제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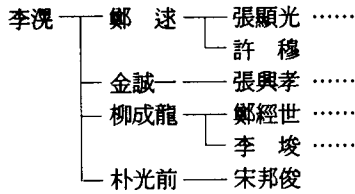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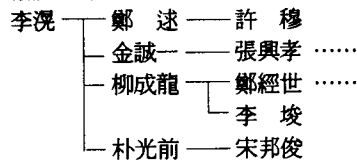
VI. 결론 : 退溪學統의 전개

필자는 IV장에서 41명의 제자군을 선정하였고 V장에서 다시 寒岡 鄭述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결국 총 42명의 學統弟子가 정해진 셈인데, 이 가운데는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여 퇴계학을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당대에 그친 인물도 있었다. 현재 단계에서 그 학맥들을 낱낱이 밝혀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여러 문헌이나 선행 연구자들이 정리해서 계보화해 놓은 퇴계 학파의 學統淵源圖를 검토하고 이를 위에서 설정한 42명의 범위 안에서 재정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지으려 한다.

19) 『寒岡全書』, 附錄, 「年譜」 28세條.

먼저 『典故大方』과 『朝鮮儒賢淵源圖』에서 제시한 淵源圖를 말단은 생략하고 큰 줄기만 옮기면 각각 다음과 같다.

『典故大方』²⁰⁾『朝鮮儒賢淵源圖』²¹⁾

『典故大方』은 1924년에 간행되었고 『朝鮮儒賢淵源圖』는 1941년에 간행되었다. 兩書는 공히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유포되어 있던 여러 문헌자료를 한 곳에 모아 놓았다는 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學統弟子의 선정이 퇴계와의 학문적 교감이나 학파 내에서의 역할에 의해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鄭述, 金誠一, 柳成龍, 朴光前은 모두 諡號를 받은 즉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바탕 위에서 큰 학파를 이룬 학맥을 중심으로 하여 그 후손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존하여 學統淵源을 작성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19·20세기 초까지 영남지역 유림사회를 압도하다시피 한 안동의 定齋(柳致明)학파나 성주의 寒洲(李震相)학파가 다 학봉학맥을 이었고, 성주의 溪堂(柳疇睦)학파는 서애학맥을 이었으며, 상주의 恭山(宋浚弼)학파와 창녕의 深齋(曹兢燮)학파는 한강학맥과 연결된다. 이러한 판도가 형성되기까지는 학맥간의 불가피한 경쟁과 대립이 있었고, 그 결과는 끝까지 존속하였던 학파의 입장이 반영된 이와 같은 淵源圖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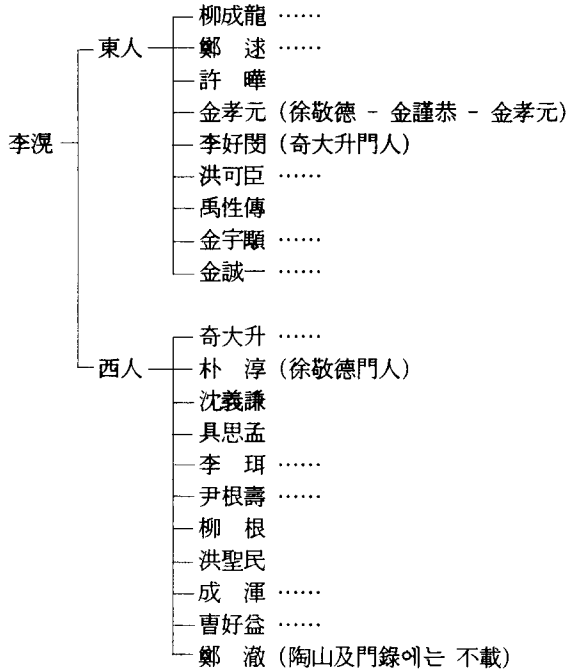
현재 인명사전을 비롯한 각종 문헌, 심지어 학술논문에게까지 이러한 淵源圖들이 무비판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근자에 섰던 연구자들에 의하여 그려진 淵源圖를 살펴 보기로 한다. 姜周鎭 박사와 李家

20) 姜敷錫 著, 서울: 明倫堂, 1993, p.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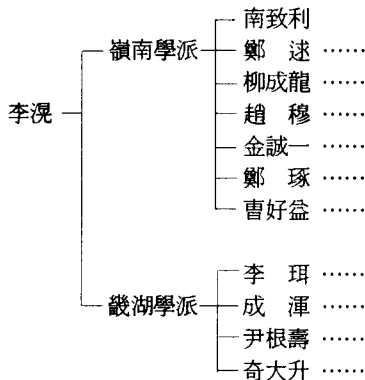
21) 尹榮善 著, 東文堂, 1941, 『朝鮮儒賢淵源傳統圖』.

源 박사가 작성한 淵源圖를 역시 말단은 생략하고 及門弟子 부분만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姜周鎮의 淵源圖〉²²⁾



〈李家源의 淵源圖〉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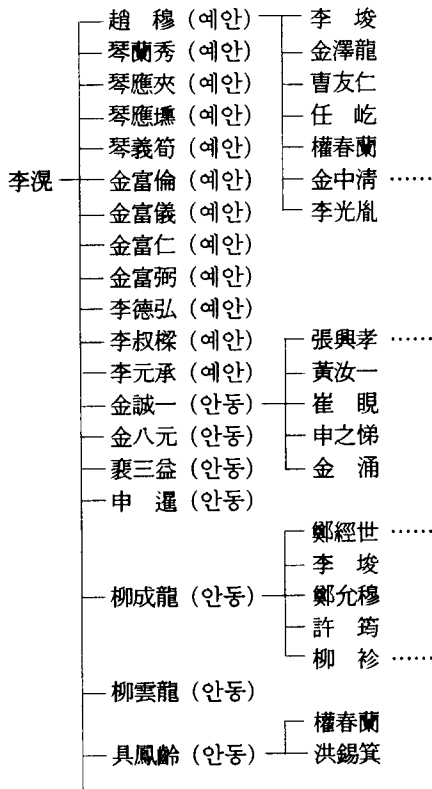
22) 姜周鎮, "李朝史에 있어서의 退溪", 『退溪學研究』, 1972, p.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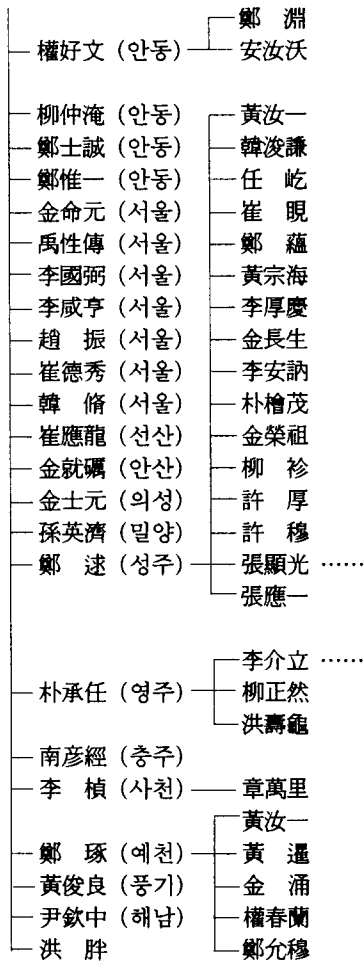
23) 李家源, 『退溪學及其系譜的研究』(서울: 퇴계학연구원, 1989), pp 376-396. 著者は 퇴계학 통을 薰陶弟子, 家學淵源, 私淑諸人으로 삼분하여 계보화하였으나, 이 가운데 家學淵源, 私淑諸人은 제외하고 薰陶弟子 부분만을 옮겨 정리한다.

두 원로 학자의 淵源圖는 姜敦錫이나 尹榮善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당색이나 정치적 성공보다는 상대적으로 及門기록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陶山及門諸賢錄』이 주요 근거자료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學統弟子들의 당색과 지역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퇴계가 모든 사림들의 師表로서 존경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 분이 작성한 淵源圖는 『陶山及門諸賢錄』의 축소판으로서 필자가 본고에서 제기한 문인록에 내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두 분이 말하는 學統弟子의 근거도 퇴계를 배알한 사실이나 輓·祭·錄 등에서 표현된 흠모나 존경의 표현이다. 이러한 淵源圖는 도산을 중심으로 출입하였던 유림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그야말로 退溪學統의 흐름을 아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위에서 설정한 42명의 學統弟子를 가지고 같은 형식의 淵源圖를 작성하여 보았다. 퇴계에게 직접 배운 及門제자는 위에서 정한대로 작성하였지만, 再傳제자 이하는 엄격한 의미에서 다시 각 학맥별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再傳제자 이하의 사제관계는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드러난 퇴계학맥의 규모를 대강 확인하고 앞으로의 학맥별 연구 가능성을 짐작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선행 연구자들이 작성한 淵源錄에 의한 것이므로 퇴계의 학통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三傳제자 이하는 기존 淵源圖에 소개되어 있지만 확인하기 전에는 옮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는 각 학맥의 再傳제자 이하의 부분을 확인하여 정당한 위치를 부여하는 일과 퇴계에서 발원한 각 학맥들이 어떠한 학문적 특징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退溪門人 師承關係圖表〉

번호	姓名	生沒年	號	居住	文集名	門人錄所載師承關係	個人文集所載師承關係
1	鄭之雲	1509-1561	秋櫛	高陽		처음 金安國형제에게 배움. 공의 天命圖를 退溪가 개정함. 이를 계기로 함께 연구함. 〈錄·書·祭〉	
2	李 湛	1510-1574	靜存齋	龍仁		처음 柳蘊學, 慶世仁에게 師事. 후에 退溪에게 質疑. 後學으로 자처함 〈書·祭〉	
3	李 楨	1512-1571	龜巖	泗川	龜巖集	처음 宋麟壽에게 受業. 榮川군수시에 陶山에서 退溪를 拜謁. 〈錄·書·詩·祭〉	처음 宋麟壽에게 師事. 그후 退溪를 師事. 慶州에 있을 때 매년 拜謁. 전후 수십년간 편지가 없는 달이 없었음. 의문이 생기면 반드시 質疑하였음 (行狀: 鄭斗謹 撰)
4	朴 雲	1493-1562	龍巖	善山	龍巖集	中年에 朴英에게 師事. 晩年에 退溪를 사모하여 몇번 拜謁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폐백을 보냄.	편지로 문답을 주고 받다가 지은 책에 대한 주문을 받았음. (墓碣銘: 退溪 撰)
5	崔應龍	1514-1580	松亭	善山		먼저 朴英에게 師事. 후에 退溪문하에 遊門. 〈錄·書·詩〉	
6	盧守愼	1515-1590	蘇齋	尙州	蘇齋集	執筆하지는 않았지만 朱門 西山의 예에 따라 제자로 간주함	李延慶문하에 입문. 李彦迪에게 執筆. 退溪와의 관계에 관해 언급 없음. (行狀: 李垓 撰)
7	洪仁祐	1515-1554	恥齋	京	恥齋遺稿	만년에 退溪를 서울집으로 拜謁. 面論書疑. 〈錄·書·挽詩〉	盧守愼·許嘩과 道義交. 만년에 退溪를 만나 師友로 삼음. (行狀: 長男 洪進 撰)
8	韓脩	1514-1588	石峯	京		遊門〈書〉	
9	申沃			京		遊門〈詩〉	
10	韓胤明		桐菴	京		遊門〈詩〉	
11	柳希春	1513-1577	眉巖		眉巖集	退溪와 왕복서한 退溪言行錄 작성.	崔山斗에게 受學. 金安國에게 質疑. 擯蒙求를 退溪에게 보내어 정정을 요청함. (諡狀: 李好閔 撰)
12	李威亨		山天齋	京		遊門	
13	許忠吉	1516-?	南溪	京		遊門	

14	黃俊良	1517-1563	錦溪	豐基	錦溪集	受業	수업사실 언급없음 (行狀:退溪 撰)
15	朴承任	1517-1587	嘯阜	榮川	嘯阜集	論語·朱子書에 관해 質疑하고 인가받음. 啓蒙傳疑 깊이 연구. (挽詩)	拜謁, 質疑함 啓蒙傳疑 에 정통함 晦齋·退溪 양현을 학문의 모범으 로 함.(行狀:門人 金中 淸 撰)
16	張壽禧	1516-1586	果齋	榮川		6세 受業, 집의 편역을 退溪가 써줌 伊山서원 창건을 주관하고 退溪와 긴밀히 상의함.	
17	金生溟	1504-1577	訥齋	禮安	訥齋集	일찍이 退溪문하에 入門, 심경·역학계몽에 관해 質疑 退溪가 訥齋란 齋 號를 지어줌 (挽詩·祭)	1543년 봄에 退溪를 陶山에서 拜謁, 재실을 짓고 退溪의 뜻에 따라 訥齋로 편역함. (行狀:嫡從弟 柳雲龍 撰)
18	權東輔	1518-?	靑巖	安東	靑巖逸稿	出入	출입사실 언급없음. (墓碣銘 許穆 撰)
19	黃應奎	1518-1598	松洞	豐基	松洞集	遊門	먼저 周世鵬에게 文章 을 익히고, 후에 退溪 에게 受業. (行狀:洪羲俊 撰)
20	李叔樸	1519-1592	梅巖	禮安	梅巖集	早遊門〈書·記後〉	遊門, 巖棲軒가끼이에 樂益亭을 짓고 살면서 주자서철요, 심경을 애 독 (行狀:後學 李晚燾 撰)
21	金德龍		靜齋	京		遊門〈詩〉	
22	李元承	1518-1572	靑巖	禮安	靑巖遺稿	早遊門〈書·詩〉	退溪와 주고받은 서찰 과 명 아주지팡이 언 급, 退溪의 사랑을 많 이 받았다고 함. (墓碣銘:李晚燾 撰)
23	金彦璣	1520-1588	惟一齋	安東	惟一齋逸稿		具鳳齡, 金富弼, 權春 蘭, 權好文 등과 교류 南致利, 鄭士誠을 陶山 으로 보냄 蘆江서원洞 主가 되어 陶山서원을 수차 방문. "이웃 고을 에 살면서 스승으로 모 시게 되어서"(上草洞書) 구체적 入門사실은 언 급없음 (行狀:後學 李光庭 撰)
24	吳健	1521-1574	德溪	山陰	德溪集	처음 南冥에 從遊, 다음 黃俊良와 주자서 강독, 陶山으로 가서 더 배움. (詩·挽詩)	南冥을 德山洞에서 從 遊, 星州목사 黃錦溪와 주자서 강론, 후에 退 溪문하에 登門, 長男은 본래 鄭述에게 行狀을 부탁하였음.

25	琴輔	1521-1584	梅軒	禮安	梅軒集	20세에 受業을 청함. 〈詩·祭〉	(行狀:姜大逵 撰) 1546년(26세)에 受業을 청함. 왕래, 질문, 번번 寒樓庵 남쪽에 집을 짓고 스승으로 모심 (行狀:許傳 撰)
26	吳守盈	1521-1606	春塘	禮安	春塘集	16세에 登門 退溪가 손수 二程全書 써서 줌. 〈書·詩·祭〉	春塘은 溫溪·退溪의 친척. 5, 6세부터 禮安 松齋에 의탁, 溫溪, 退溪와 함께 지냄. 16세부터 陶山에서 受業. (行狀:柳達 撰) 退溪에게 從學. 退溪가 敬重함. (墓碣銘:從五代孫 金世鎬 撰)
27	金克一	1522-1585	藥峯	安東	藥峯集	弱冠 登門	退溪에게 從學. 退溪가 敬重함. (墓碣銘:從五代孫 金世鎬 撰)
28	孫英濟	1521-1588	鄒川	密陽	鄒川集	禮安현감時 就門. 講學 問政. 1579년 陶山서원 건립때 봉급을 기울여 자금 보조함. 〈祭〉	현감 취임 즉시 入門하려 했으나, 退溪가 서울에 있었으므로 사퇴를 기다려 1545년 3월에 執贖 入門함. (行狀:李野淳 撰)
29	朴淳	1523-1589	思菴	京	思菴集	먼저 徐敬德에게 배움. 中年에 退溪에게 師事, 往復論議 成渾, 李珣와 막역한 관계. 〈詩·挽詩〉	徐敬德에게 受業. 1575년 좌의정으로서 徐敬德의 증직을 요청 死後 花潭서원에 배향됨. 退溪師事 언급없음. (行狀:後學 李選 撰)
30	權大器	1523-1587	忍齋	安東	忍齋集	早登門 〈詩〉	등문사실 언급없음. (行錄:子 權宇 撰)
31	洪渾	1541-1593	時雨	陽根			
32	朴承倫	1523-?	桐原	榮川		遊門	
33	金宇宏	1524-1590	開巖	星州	開巖集	먼저 南冥에 遊門하고, 후에 退溪에 遊門함 〈書·祭〉	退溪, 南冥의 문하에 往來, 대인군자론을 들음. 退溪에게 上書, 예법에 관해 質疑. 退溪 下世에 뜻함. (行狀:權相一 撰)
34	裴紳	1520-1573	洛川	玄風	洛川集	弱冠에 南冥을 만났고, 다음에 退溪에 遊門.	처음 金柳에게 受學. 弱冠에 南冥을 만났으며, 후에 陶山에서 退溪에 從學. 南冥先生實記를 지음. (行狀:後學 許穆 撰)
35	金富仁	1512-1584	山南	禮安		早遊門 〈詩〉	
36	金富弼	1516-1577	後潤堂	禮安		早遊門 〈心經問目·錄·書·詩〉	
37	金富信	1523-1566	養正堂	禮安		遊門 〈挽詩〉	
38	金富儀	1525-1582	挹清亭	禮安		遊門 〈書·挽詩〉	
39	金富倫	1531-1598	雪月堂	禮安	雪月堂集	受業 〈書·詩·祭〉	16세에 陶山에 入門.

						어려서부터 退溪에게 인정받음. 陶山의 高弟子. (行狀: 李光庭 撰)
40	朴濟		京		退溪를 모신지 10여일 만에 退溪下世.	
卷二						
41	趙穆	1524-1606	月川	禮安	月川集	15세부터 受學. 언행에 오직 退溪를 표준으로 함. "退溪의 도학은 月川을 제자로 얻음으로써 빛났다" (神道碑銘: 鄭蘊 撰)
42	金八元	1524-1569	芝山	安東	芝山集	먼저 周世鵬에게 배움, 후에 退溪에게 登門. (錄·詩)
43	金樂春	1525-1586	忍百堂	安東	忍百堂遺稿	遊門 金富儀와 함께 陶山으로와 退溪를 뵈고 제자가 됨. (墓碣銘: 權相一 撰)
44	金德驄			京		遊門
45	具思孟	1531-1604	八谷		八谷集	質疑 질의사실 언급없음. (行狀: 子 具成 撰)
46	鄭以濟		竹舍	安東		<書>
47	鄭芝衍	1525-1583	南峯	京		먼저 李仲虎에게 受學, 후에 退溪에게 講質. <挽詩>
48	具鳳齡	1526-1586	柏潭	安東	柏潭集	弱冠 登門 <錄·詩·挽詩·祭> 擊蒙에 있어서는 權彭老(외종조부), 鄭以興을 스승으로 삼고,問道에 있어서는 退溪를 스승으로 함 "退溪문인으로는 西厓, 柏潭, 鶴峯을 우두머리로 친다." (行狀: 李竣 撰)
49	金就礪	1526-?	潘齋	安山		登門 <書·詩>
50	鄭琢	1526-1605	藥園	安東 醴泉	藥園集	임인년(16세) 登門 <書·詩·輓詞·祭>
51	琴應夾	1526-1596	日休堂	禮安	日休堂遺稿	早遊門 자라서 退溪에 遊門함.

					日休라는 堂號를 退溪가 줌. 〈詩·書·挽詩·祭〉	(行狀·李垓 撰)
52	朴光前	1526-1597	竹川	寶城	竹川集	8. 9세에 洪溫에게 受業 병인년 겨울에 退溪에게 執贄, 受業.(行狀·安邦俊 撰)
53	奇大升	1527-1572	高峯	光州	高峯集	무오년(32세)에 先生에게 就正, 論辨. 退溪의 墓誌·墓碣을 撰함. 〈錄·書·祭〉
54	南彦經	1528-1594	東岡	忠州		먼저 徐花潭에 遊門, 후에 陶山에 入門. 〈書·詩〉
55	金守一	1528-1583	龜峯	安東	聯芳世稿	遊門 遊門. 子 涌이 退溪의 孫婿가 됨. (墓誌·子 涌 撰)
56	南夢鯨	1528-?	三松堂	榮川	三松逸稿	溪上에서 拜謁 退溪가 詩를 지어 보여 줌. 金誠一, 趙穆과 가장 교분이 깊음. (行狀·權省吾 撰)
57	朴愼	1529-1593	無盡齋	密陽		遊門 〈書〉
58	琴蘭秀	1530-1604	惺惺齋	禮安	惺惺集	20세에 受業. 〈書·詩·祭〉 먼저 趙穆에 從學. 후에 退溪에 受業. 月川의 妹弟. (墓碣銘·柳根 撰)
59	閔應祺	1530-?	景退齋	榮川		受學 〈詩〉
60	閔應祿					
61	朴士燾	1508-1588	默齋	禮安	默齋逸稿	무술년(31세)에 拜謁. 退溪가 默齋로 號함. 〈詩〉 배알사실 언급없음. (行狀·後學 李中轍 撰)
62	崔雲遇	1532-?	陷景	江陵		갑인년(23세)에 찾아와서 問道.
63	權好文	1532-1587	松巖	安東	松巖集	弱冠 遊門 〈挽詩·錄·書·詩〉 弱冠에 退溪문하에 入門. "西厓·鶴峯 양현이 松巖을 존경함이 가장 깊었음." (行狀·後學 洪汝河 撰)
64	鄭惟一	1533-1576	文峯	安東	文峯集	早登門 〈祭·書·詩〉 早登門 柳成龍·金誠一 具鳳齡이 높이 평가하였음. (行狀·任奇 撰)
65	李中立	1533-1571	龜溪	龍宮		安東 受業 (徐嶠와 함께)
66	權宜	1531-1585	城谷	安東		
67	金明一	1534-1570	雲巖	安東	聯芳世稿	請教, 質疑 (아우 金誠一峯과 함께) 遊門 (墓誌·猶子 涌 撰)

					〈錄〉		
68	裴三益	1534-1588	臨淵齋	安東	臨淵齋集	遊門 〈祭·輓詞·書〉	경신년(27세)에 退溪에서 李先生을 뵈고 心經, 詩經의 강의를 들음. (家狀·子 龍吉 撰)
69	權文海	1534-1591	草澗	醴泉	草澗集	병진년(23세) 登門	陶山李선생의 문하에서 親炙를 받아 학문의 대도를 얻음. (行狀·金世鎭 撰)
70	文緯世	1534-1600	楓庵	長興	楓庵逸稿	먼저 柳希春을 拜謁, 13세에 退溪에 遊門. 수년동안 머무르면서 朱子書 강론 〈錄〉	(傳記資料 없음)
71	成渾	1535-1598	牛溪	坡州	牛溪集	정묘년(33세)에 서울집에서 拜謁 〈書〉	(牛溪年譜에는 退溪를 拜謁 한 것이 무진년(34세)으로 되어 있음) 먼저 白仁傑에게 講業. 栗谷下世에 “天地之化無二本, 人心之發無二元, 理氣不可互發 등의 학설은 다 실제로 보고서 얻은 것이니 진실로 나의 스승이다” 함. 退溪 拜謁 언급없음. (行狀·李廷龜 撰)
72	李珥	1536-1584	栗谷	坡州	栗谷全書	23세에 陶山에서 拜謁. 〈遺事·書·詩·祭〉	23세에 陶山으로 退溪를 배알 書質, 辯論 “退溪는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栗谷을 따른 것이 많았음.” (行狀·門人 金長生 撰)
73	李應進	1536-1592		京		少遊門	
74	尹根壽	1537-1616	月汀	京	月汀集	受業〈挽詩〉	(傳記資料 없음)
75	許曄	1517-1580	草堂	京	草堂集	往復書〈挽詩〉	먼저 羅湜, 李翕에게 배움. 후에 徐敬德을 스승으로 섬김. (行狀·後學 鄭逮 撰)
卷三							
76	金命元	1534-1602	酒隱	京		少登門 〈酒誡·書·詩〉	
77	徐暉	1537-1559	涵齋	京		受學(李龜溪와 더불어)	
78	金誠一	1538-1593	鶴峯	安東	鶴峯集	弱冠 登門 〈書·屏銘·詩〉	弱冠에 季氏 復一과 함께 紹修서원에 遊學. 다시 退溪를 拜謁. 屏銘을 받음 무자년(1588)에 退溪文集을 교정, 정정하는 작업을 주관

79	柳仲淹	1538-1571	巴山	安東	巴山逸稿	遊門 〈書·詩〉	(行狀:鄭述 撰) 弱冠에 退溪에게 受學. 西匡의 삼촌. (墓誌銘:後學 李光庭 撰)
80	鄭崑壽	1538-1602	柏谷	星州	柏谷集	遊門 〈喪禮問目·祭〉	을축년(28세)에 陶山정사로 退溪를 拜謁, 心經을 受學. 일정한 스승이 없었으나, 동방의 도학이 退溪에게 있다고 여기고 평생 존모함을 부모 다음으로 하였다. 南冥을 또한 수차 拜謁, 사모하였다. (行狀:弟 鄭述 撰) 退溪가 집에서 강론할 때, 공은 어린 나이에 제일 먼저 負笈登門함 수년간 왕래. (行狀:女壻 金弘微 撰) (傳記資料 없음)
81	柳雲龍	1539-1601	謙庵	安東	謙庵集	登門 退溪를 표준으로 삼음. "謙庵은 退溪의嫡統" 〈問答日錄·書·詩·祭〉	退溪가 집에서 강론할 때, 공은 어린 나이에 제일 먼저 負笈登門함 수년간 왕래. (行狀:女壻 金弘微 撰) (傳記資料 없음)
82	李誠中	1539-1593	坡谷	京	坡谷遺稿	먼저 李仲虎, 金禮恭에게 배움 退溪를 서울집에서 拜謁, 質疑. 〈挽詩〉	경신년(22세)에 拜謁. 質疑 居喪함.
83	金士元	1539-1601	晚翠堂	義城	晚翠堂實記	경신년(22세)에 拜謁. 質疑 居喪함.	경신년에 退溪를 陶山에서 拜謁하고 受業을 청함. 退溪의 죽음에 3년동안 居喪. 退溪에게 往來 受學한 기간이 10년이나 지속됨. (行狀:李象濟 撰)
84	權春蘭	1539-1617	晦谷	安東	晦谷集	먼저 具鳳齡에게 師事, 후에 退溪에게 從學함.	14세에 具鳳齡에게 受業. "柏潭門下에서 학문 정진은權春蘭"이라 함. 柏潭이 죽었을 때 喪禮를 周悉히 함. 일찍이 退溪에게 請學함. (行狀:柳台佐 撰)
85	金功	1540-1616	柏巖	榮川	柏巖集	먼저 朴承任, 黃俊良에게 從遊, 후에 退溪에 受學. 〈挽詩〉	자라서는 退溪문하에서 학문을 닦았음. (神道碑銘:權增 撰)
86	金宇順	1540-1603	東岡	星州	東岡集	弱冠에 南冥에게 受學, 후에 退溪를 서울에서 拜謁 "退陶의 正脈" 退溪의 諡號를 청함. 〈疑禮問目〉	계해년(24세)에 南冥의 사위인 金行의 집안으로 장가감, 이로 인하여 南冥에게 受學. 병인년(27세)에 서울에서 退溪를 拜謁, 請問함. 退溪下世에 月谷서원에 서 哭함. 南冥下世에 喪服을 입음 (行狀:鄭述 撰)
87	琴應燾	1540-1616	勉進齋	禮安	勉進齋遺稿	早登門	琴應夾의 弟. 兄과 함

					寒穰庵 옆에 집을 짓고, 退溪가 勉進으로 齋號함	계 受業. 心經, 啓蒙등을 공부함. 琴應璠, 琴應夾, 金富儀, 金富仁	
					退溪文集 간행을 주관함. <祭·詩>	金富信, 金富倫이 한 마을에 살면서 동문수학함 경자년(1600) 退溪文集 간행 時, 관직을 사직하고 이 일을 감독함. 退溪世譜와 四書釋疑를 교정, 간행함. (行狀: 傍裔孫 琴詩述 撰)	
88	吳灑	1540-1617	竹圃	榮川	竹圃集	25세 登門 <詩>	어려서 退陶·南冥 양문에 遊門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서고부터는 강석에 참석치 못함. (行狀: 女壻 趙亨道 撰)
89	卞成溫			湖南		먼저 金麟厚에 遊門, 후에 退溪에 往來, 質疑. <詩>	
90	卞成振	1540-?	壺巖	湖南		卞成溫의 아우, 金麟厚 하다가, 退溪에게 往來, 講質.	
91	金沔	1541-1592	松庵	高靈	松庵遺稿	弱冠에 從學. 寒岡과 相友	從學사실에는 언급없음. 寒岡과 막역하게 사귀. (行狀: 尹宜舉 撰)
92	洪可臣	1541-1615	晩全	湖西	晩全集	먼저 閔純에게 遊門, 후에 退溪를 서울집에서 拜謁.	일정한 스승은 없었으나, 총각시절에는 許瞻에게 배웠고 金守恭·閔純 양현 문하에 때때로 나아가 質疑하여 惑發된 바가 많았다고 함. 退溪를 서울집에서 拜謁하였고 退溪·南冥을 함께 존경함. 吳健과 가장 절친함. (行狀: 季弟 洪慶臣 撰)
93	金復一	1541-1591	南嶽	安東	聯芳世稿	弱冠 拜謁(鶴峯과 함께) <祭>	鶴峯의 季弟. 19세에 鶴峯과 함께 白雲洞에 때 退溪문하에 나아가감. 안동에 蘆江서원을 세우고 退溪의 위패를 모심. (行狀: 金應祖 撰)
94	李命弘		坤齋	禮安		遊門<書·詩>	
95	李福弘	1537-1608	蘆雲	禮安		遊門 (良齋와 함께)	
96	李德弘	1541-1596	良齋	禮安	良齋集	어릴 때부터 登門, 受業. 退溪가 德弘으로 命名. <錄·書·詩·祭·挽詩>	弱冠에 退溪의 長孫인 安道와 조석으로 從遊하면서 退溪에게 受業. 退溪를 일상생활을 溪山記善錄으로 위음. 退溪입종시서적관리를 맡

97	柳成龍	1542-1607	西厓	安東	西厓集	弱冠 登門 (수개월 머물면서 心經, 近思錄을 受業) 退溪文集과 年譜를 편집. "陶山門下の 正脈" <書·挽詩>	김. 四書, 心經, 古文, 家禮에 대한 退溪의 講錄을 작성하였음. (行狀:宋時烈 撰) (19세)의 나이에 陶山으로 退溪를 負笈拜謁 경자년(1600)에 退溪年譜를 撰함. 후에 蘆江서원에 退溪와 함께 봉안됨. 洪汝河는 "西厓가 陶山門下の 正脈"이라 함. (行狀:鄭經世 撰)
98	申濩	1530-1598	高山	靑松	遊門 (申演과 함께)		
99	申演	1534-1594	寓軒	安德	遊門		
100	禹性傳	1542-1593	秋淵	京	受業 易象, 禮學을 공부함. <錄·書·詩>		
101	宋言慎	1542-1612	壺峯	廣州	壺峯集 먼저 柳希春, 許疇, 盧守愼에게 배우고, 다음에 退溪에게 師事. 어사로서 退溪文集 간행을 임금께 요청. <書·祭>	退溪문하에 들어오자 博文約禮에 힘쓸 것을 명함. 退溪集 간행을 요청함. 退溪와 禮學, 經義에 관해 문답한 글이 있었으나 임란때 소실 (行狀:柳滄 撰)	
102	金孝元	1542-1590	省菴	京	省菴遺稿 早遊門 西厓, 鶴峯, 東岡, 藥圃, 德溪 등과 도의교를 맺음. <祭·詩>	退溪·南冥 양현의 장학을 입고서 학문방법을 알았음. (言行錄:李坡 撰)	
103	朴漸	1532-?	復庵	京	遊門 <挽詩·書>		
104	丁胤禧	1542-1600	嗣庵	原州	遊門 <書>		
105	李堯臣		栗谷	牙山	溪上서당에서 受業.		
106	金箕報	1531-1588	蒼筠	安東	蒼筠遺稿 먼저 成守琛에게 배우고, 후에 退溪에게 遊門. <書>	일찍이 成守琛문하에 유학, 후에 陶山에서 退溪에 從學 (遺事:後孫 金濟淳 撰)	
107	李敬中	1542-1585	丹厓	京	遊門 (弟 養中과 함께) <輓詞>		
108	南致利	1543-1580	黃趾	安東	黃趾集 弱冠 登門 <挽詩·祭>	弱冠이 지나 遊門함 (行狀:權宇 撰)	
109	鄭述	1543-1620	寒岡	星州	寒岡集 13세에 吳健에 執贖, 曹植·成運에 問業. 계해년(21세)에 退溪를 拜謁 心經에 관해 質疑. <錄·書>	吳健이 고을의 향교를 맡고 있었으므로 가서 受業함. 계해년(21세) 봄에 退溪를 拜謁하고 心經에 관해 質疑함. 往來, 書質. 병인년(24세)에 曹植을 拜謁함. 다시 成運을 拜謁함 宜祖에게 "신은 退溪, 南冥의 문하에 出入하면서 質疑했으나 경전을 잡고 受業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함	

110	曹光益	1537-1578	聚遠堂	昌原	聚遠堂集	13세에 從學 心經 배우기를 청함.	退陶문하에서 學問의 淵源을 알았고, 높은 風度를 南冥에게서 傳習하였고, 고상한 취미를 大谷에게서 이어받음. (行狀:張顯光 撰) 거우 십여세에 退溪를 拜謁, 心經을 請學함 栗谷, 高峯, 寒岡 등과 도의교를 맺음. 退溪, 南冥을 함께 존경함. "退溪는 성리학에 조예가 깊고, 南冥은 기상과 절개를 숭상하였다." (行狀:從六代孫 曹采臣)
111	曹好益	1545-1609	芝山	永川	芝山集	17세 登門. 兄 光益과 함께 陶山에 拜謁. <手記>	退溪門下를 往來하며 학문의 연원에 관해 들음. (行狀:門人 金堉 撰)
112	金梯甲	1525-1592	毅齋	京		계묘년(19세)에 拜謁, 師事	
113	鄭士誠	1545-1607	芝軒	安東	芝軒集	17세 登門. <錄·書·詩·祭>	7세에 金彦璣에게 배우고, 뒤에 具鳳齡에게 배움. 17세에 陶山에서 退溪에게 請學 退溪門下에 10년을 머무르며 受業함. 退溪下世에 병구완, 치상, 장례를 치름. 鶴峯, 西厓와 긴밀히 교유함 (行狀:李象靖 撰)
114	金晬	1547-1625	夢村	京		陶山에서 從學. <錄·詩·祭>	
115	李養中	1525-?	西川	京		遊門 <軼詞·書>	
116	趙振	1543-?	雙隱	京		陶山에서 從學 <書>	
117	李愈	1522-?	梅村	醴泉		遊門 (弟 李熹, 李應과 함께)	
118	李憲	1532-?	栗里	醴泉		遊門 <祭>	
119	琴繼	1533-?	高巖	禮安		早遊門 (兄 輔와 함께)	
120	李應	1536-?	訥軒	醴泉		陶山에서 受業.	
121	李國弼			京		遊門 <錄·書·詩>	
122	李光承	1540-1604	犁巖	禮安		遊門 遺稿刊行시 중사함.	
123	尹剛中		石亭	海南		受業 (弟 欽中, 端中 表兄 文緯世와 함께) <詩>	
124	尹欽中		石門	海南		受業 <書>	
125	尹端中	1550-1608		海南		병인년(17세)에 受業	
126	南彥紀		考槃	京		遊門 <挽詩·書>	
127	金澤龍	1547-?	操省堂	禮安	操省堂集	먼저 趙穆에게 배우고, 후에 退溪에게 遊門.	8세에 趙穆에게 배움. 자라서는 退溪에게 登門. 質疑, 南致利, 權宇 등과 도의계를 맺음 (墓誌銘:後學 柳必永 撰)

128	李容		漁隱			從學〈詩·祭〉	
129	沈喜壽	1548-1622	一松	京	一松集	먼저 盧守愼에게 從學, 후에 退溪에게 遊門 〈挽詩〉	(傳記資料 없음)
130	梁子徵	1523-1587	鼓巖	昌平		먼저 金麟厚에게 師事, 후에 退溪에게 就學.	
131	金得可	1547-1591	柱峯	安東	柱峯逸稿		퇴계와의 관계 언급없음. 完平 李元翼과 가장 절친. (家狀:子 璵 撰)
132	邊永清	1516-1578	東湖	安東	東湖文集	遊門〈詩〉	"退陶에게 從遊했으나 왕복 서찰을 임진년 兵火에 모두 잃었다." (行狀:柳致曉 撰)
133	金堧	1538-1575	九峯	禮安		早遊門〈挽詩〉	
134	金圻	1547-?	北匡	禮安		卍角 遊門 退溪가 字를 지어줌 退溪文集 교정	
卷四							
135	柳根	1549-1627	西垞	京	西垞集	卍角 遊門〈祭〉	(傳記資料 없음)
136	朴濟	1548-1608	雪阜	義城		경오년(23세)에 易東 서원으로 拜謁, 請學 여러날 머물면서 啓蒙 을 강론했음 〈詩〉	
137	洪迪	1549-1591	荷衣 養齋	京	荷衣遺稿	22세에 陶山에서 拜謁. (洪應吉의 子)	경오년(22세)여름 退溪, 蘇齋 두 선생을 拜謁, 請學함. (行狀:韓浚謙 撰)
138	金隆	1549-1594	勿巖	榮川	勿巖集	18세에 入門. 退溪下世 心喪 〈祭·錄·書·詩〉	14세에 朴承任에 從學. 18세에 退溪門下에 入門. 退溪下世 心喪三年 (行狀:權斗寅 撰)
139	宋福基	1541-1605	梅圃	醴泉	梅圃遺集	먼저 朴承任에게 배움. 후에 退溪에 遊門. 〈詩〉	退溪遊門 언급없음. (墓碣銘:金應祖 撰)
140	申湜	1551-1623	拙齋	清州		從學	
141	許箴	1548-1612	嶽麓	京	嶽麓集	〈挽詩·祭〉	젊어서 柳希春에게 師事. 가정(父, 許曄)에서 얻은 것 이 가장 많았음. (墓碣銘:金世謙 撰)
142	許箴	1551-1588	荷谷	京	荷谷集	早遊門〈書·挽詩〉	遊門사실 언급없음 (年譜).
143	權宇	1552-1590	松巢	安東	松巢集	18세 登門	19세에 退溪에 遊門하여, 啓蒙을 受學함. 趙穆을 師事하여 교분이 가 장 깊었음. (行狀:權璋 撰)
144	朴養	1535-?	病柏堂	醴泉		早遊門 후에 趙穆에게서 卒業. 遊門 〈喪禮答問·挽詩〉	
145	金泰廷			京			

146	白見龍	1543-1622	惺軒	寧海	惺軒逸集	早遊門	弱冠에 향교를 맡고있던 金彦璣에게 請敎. 인하여 陶山으로 退溪를 拜謁. 매년 隴雲精舍, 靑涼山寺에 묵으며 독서함. (行狀: 後學 金興洛 撰)
147	成洛	1542-?	南匡	京		遊門〈挽詩〉	
148	洪胖					受業〈書·祭〉	
149	琴義筍	1543-1591	翠巖	禮安		受業(弟 梯筍과 함께) 大學, 啓蒙, 心經을 배움	
150	琴梯筍	1545-1610	赤巖	禮安		弱冠 受業〈詩〉	
151	張謹	1544-1619	潛齋	榮川		遊門〈祭〉	
152	南傑					瓶庵	
153	南弼文					操庵	
154	高應陟	1531-1605	杜谷	善山		登門 退溪가 병풍글씨를 써 줌.	
155	金希禹					京	
156	李淳	1530-1606	山南	星州		受業	
157	李達		孫谷	京	孫谷集	質疑〈書〉	(傳記資料 없음)
158	李天機					質疑〈書〉	
159	呂世潤		西巖	京		〈詩〉	
160	李國樑	1517-1554	鳴谷	禮安			
161	金壽愷					玄風	
162	金壽恢					玄風	
163	趙擊					京	
164	文命凱		省克齋	榮川		〈祭〉	
165	安鬻	1538-1602	東阜	安東		먼저 具鳳齡을 師事, 후에 退溪에 遊門 〈祭〉	
166	琴鳳瑞	1538-1604	廬江	安東		早遊門 退溪文集 편집.	
167	孫興禮	1548-1578	三省齋	安東	三省齋逸稿	登門	11세에 具鳳齡에게 受學, 16세에 金彦璣에게 從學. 정묘년(20세)에 退溪에 登門. (行狀: 李潛衡 撰)
168	孫興慶	1543-1614	鳴巖	榮川		무진년(26세)에 拜謁. 밤낮으로 강론, 질의함. 3년만에 退溪下世하여 心喪三年.	
169	李光軒					〈挽詩〉	
170	申價					〈挽詩·祭〉	
171	申濩	1591-?24)					
172	洪仁祉					서울집에서 수차 質問. (洪仁祐의 弟)	
173	鄭允良	1515-1572	魯村	永川		早遊門	

24) 申濩의 生年 1591년은 <陶山及門諸賢錄>에 萬曆 辛卯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환산한 것이지만, 1591년이라면 退溪 死後이므로 착오인 것으로 보임.

174	盧遂		小庵	永川	小庵稿	먼저 金大有에게 師事, 늦게 退溪에게 遊門.	三足堂 金大有에게 먼저 師事, 늦게 退溪문하에 遊 門. (遺事)
175	金應生	1516-?	明山	永川		往來, 講質.	
176	具贊福			禮安		遊門<祭>	
177	具贊祿	1519-1595	松顔	禮安		退溪가 글을 써서 줌. <挽詩·書>	
178	朴遂一	1553-1597	健齋	善山	健齋逸稿	18세에 拜謁	갑자년(12세)에 上舍 李仁 壽에게 글을 배움. 경오년 (1570, 18세)에 退溪 拜謁, 신미년(19세)에 盧守愼에게 質疑. (行狀: 李象靖 撰)
179	全嶺	1546-1612	四友堂	龍宮		登門 心經, 近思錄을 배움. <詩>	
180	崔德秀			京		遊門<詩>	
181	申暹			安東		遊門<書>	
182	朴權	1551-1592	勿齋	榮川		出入門下 (退溪 孫女婿) <書>	
183	金戩	1531-?	水村	京		退溪가 題詠, 跋文을 써 줌. <書·挽詩>	
184	權景龍	1537-?		咸昌		遊門<詩>	
185	權東美	1525-?	石亭	安東		遊門 (兄 權東輔와 함께) <詩·挽詩>	
186	申澗					<挽詩>	
187	金啓	1528-1574	雲江		雲江遺稿	<挽詩>	金麟厚에게 受業. 宋純, 柳希 春, 奇大升, 朴淳, 鄭澈 등과 가 깝게 교유 (墓誌銘: 宋達株 撰)
188	崔順		南江			경신년(1560)에 拜謁. <挽詩>	
189	周博	1524-?	龜峰	漆原	龜峰集	原稿에 대한 교정을 받음 <挽詩>	(傳記資料 없음)
190	林芑					<詩>	
191	曹駿龍					<挽詩>	
192	姜文佑					陶山에서 拜謁.	
193	權春桂	1544-?					
194	趙容			京			
195	尹卓然	1538-1594	重湖	京	重湖集		퇴계와의 관계 언급없음. (行狀: 李塾 撰)
196	金濼	1558-1631	愛景堂	安東		13세에 陶山에서 拜謁 (鶴峯의 子, 受業한지 몇 달만에 退溪下世)	
197	權伯麟	1536-1587 ²⁵⁾	昧軒	禮安	昧軒實記	拜謁	執贊 拜謁. 論語를 배우고 講質함 (行狀: 金濼模 撰)
198	郭澣		癡溪	豐基	<書>		
199	金忠男	1530-1618		京			

25) 추정한 생몰년. 權伯麟의 <行狀>에 표기된 干支가 정확치 않음

200	蔡承先	1514-?				〈書〉	
201	朴寬	1515-?	孤巖				
202	朴枝華	1513-1592	守庵	守庵遺稿	陶山에 머무름	언급없음. (遺事, 芝峰類說)	
203	崔聘齡			京	退溪 장례時 節次를 논 합		
204	安克誠			龍宮		〈書〉	
205	尹興宗		採蓮				
206	金成璧						
207	李純仁	1533-1592	孤潭	孤潭逸稿	遊門	李仲虎에게 受業. 退溪·南 冥에 遊門. 退溪가 낙향할 때 한강까지 전송함. (行狀: 外孫 李眞聘 撰)	
208	趙忠男			京		〈詩〉	
209	李好閑	1553-1634	五峯	軍威	五峯集	경오년(18세)에 陶山 에서 拜謁	배알사실 언급없음. (諡狀: 李敏求 撰)
210	金玄度	1551-?	認軒				
211	金守愚						
212	卞成韜						
213	辛乃沃		一竹齋	一竹齋遺集			退溪가 巖棲軒에서 강론할 때 入門. 柳雲龍, 權好文과 절친하게 교유. (墓碣銘: 權頊淵 撰)
214	李士愿	1540-1591	竹堂	禮安		갑자년(25세)에 寒樓庵 에서 拜謁, 受業.	
215	金弘度	1524-1557	南匡				
216	權洙						
217	李善承	1527-1586				受業 (弟 李克承과 함께)	
218	李克承	1530-1594	豐基			기유년(20세)에 白雲洞 서원에서 공부할 때 退 溪의 칭찬을 받음.	
219	洪益昌						
220	洪亨叔					〈書〉	
221	郭守仁						
222	李光友	1529-1619	竹閣	山淸	竹閣集		南冥문하에 入門. 南冥문하 의 鄭述, 金宇順, 李楨, 盧禎, 吳 健, 姜翼, 河沆, 崔永慶, 徐思遠 등과 교유함. 南冥下世에 居 喪하고 心喪三年함. 記文 칭하는 일로 退溪를 두 차례 拜謁함
223	金允明*	1545-?	松關	順天			
224	朴敬章						
225	朴仲章						
226	李大潤						
227	金伯起						
228	朴世賢	1521-1593		寧海		(退溪의 姪婿)	
229	李楊若						
230	金希仲						

231	朴允誠		松阜				
232	全慶昌	1532-1585	溪東	大丘	溪東集		만년에 退溪의 풍도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 心經, 近思錄, 朱子書를 가지고 가야산으로 들어감. (行狀·門人 孫處訥 撰)
233	柳祺						
234	權士立						
235	蔡致遠		三一堂			<詩>	
236	黃耆老		孤山	善山		<詩>	
237	朴應烈					<詩>	
238	琴仰聖	1524-1603		禮安		(退溪의 姪婿)	
239	李僞	1535-1600	篁谷	咸安	篁谷集	먼저 南冥에게 從學, 후에 退溪에게 遊門.	南冥에게 遊門하고, 退溪를 拜謁함. 金字順, 鄭述, 張顯光 등과 도의교를 맺음 (行狀: 李玄逸 撰)
240	曹 ²⁶⁾		愛松堂	京		受業<詩>	
241	李文奎	1513-?	文谷	安東		(退溪의 族姪)	
242	李庭楹	1542-1612	松澗	安東	松澗集	受業 (退溪의 族曾孫) 退溪文集을 교감, 간행.	退溪에게 受學. 안으로는 退溪가 조부로서 경계하고 밖으로는 鶴峯이 외사촌으로서 경계함. (行狀: 姊子 李時明 撰)
243	李逢春	1542-1625	鶴川	安東	鶴川遺集	登門 金誠一, 禹性傳, 鄭士誠 등과 강론	일찍이 退溪문하에 登門 하여 가르침을 받음. (墓碣銘: 從孫 李爾松 撰)
244	李庭柏	1553-1600	樂琴軒	安東	樂琴軒集	5,6세 때 退溪가 이마를 쓰다듬으며 칭찬하고 학문을 권면함. 金誠一, 南致利와 도의를 강마함.	(이마 쓰다듬으며 칭찬, 권면 한 부분 동일) 金誠一과는 내외종간으로 가깝게 교유 南致利, 權宇 등과는 退溪文集을 교정, 정서함. (行狀: 族孫 李仁行 撰)
245	李亨男	1556-1627	松溪	安東	松溪集		(退溪 三從孫) 늦게 태어나 退溪門下에 오르지는 못하였고, 조금 자라서 權大器에게 請學하여 退溪學을 私淑하였음. 만년에는 趙穆, 柳成龍에게 從學. 退溪遺稿를 교정하는 일에 참여함. (行狀: 李世澤 撰)
246	李寅	1502-?		禮安		退溪가 칭찬함.	
247	李完	1512-1596	企庵	禮安		句讀를 뉘 때부터 受學. (退溪의 仲兄 河의 子) <書·詩>	
248	李宏	1515-1573		醴泉		退溪가 칭찬함	
249	李宣			禮安		(退溪의 셋째兄 澆의 子)	

26) 《陶山及門諸賢錄》에는 姓만 있고 名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權五鳳 박사는 이 사람의 성명을 曹建으로 추정하였다.

250	李宰		禮安	退溪가 칭찬함. (李宜의 弟)	
251	李宓	1520-1545	禮安	受業 (退溪의 넷째兄 濬의 子) 〈祭〉	
252	李憑	1520-1591	晚翠軒 禮安	受學 (退溪叔父 李楸의 孫) 병신년(17세)에 弟 冲과 함께. 신미년(52세)에 易 東서원에서 退溪文集을 수집함. 〈書〉	
253	李甯	1523-1583	禮安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훈 도를 받았으며, 날마다 退溪門人들과 강마함. (退溪의 長子) 〈書〉	
254	李寧	1527-1588	漫浪 禮安	受業 (宓의 弟)	
255	李甯	1527-1592	遠巖 禮安	受業 (寧의 弟)	
256	李寘	1534-1555	禮安	受業 (교의 弟)	
257	李冲		禮泉	受學 (憑의 弟) 병신년(1536)에 兄 憑과 함께 受學함.	
258	李宗道	1535-1602	芝洞 禮安	어린 나이에 退溪에게 배움. (李完長의 子) 易東서원에서 退溪文集 을 수집함. 〈詩〉	
259	李閔道	1538-1591	遇巖 禮安	退溪가 편액을 쓰고 詩를 지어줌 (宏의 子)	
260	李安道	1541-1584	蒙齋 禮安	蒙齋集 어려서부터 家學을 익힘. (退溪의 長孫) 〈書·詩〉	退溪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 서부터 詩와 禮를 배워 일 찍 성숙함. (墓碣銘: 柳根 撰)
261	李憲	1543-1578	禮安	8세에 고아가 되어 退溪 가 데려다 가르침. (寘의 弟)	
262	李純道	1554-1584	禮安	어려서부터 退溪의 가르 침을 받음. (安道の 弟)	
263	李揆道	1557-?	禮安		
264	李詠道	1559-1637	東巖 禮安	9세에 中庸을 受業.	
265	裴蘄		順興	紹修서원에서 遊門. 退溪下世에 心喪함.	
券五: 續錄					
266	琴應石	1508-1582	種善亭 禮安		
267	許士廉	1508-?	蒙齋 宜寧	遊門	
268	許千壽	1509-1577	天山齋	退溪가 儒者로 인정함. 〈朱書問目〉	

269	申元祿	1516-1676	晦堂	義城	晦堂集	먼저 周世鵬에게 遊門, 후에 溪上和 豊基에서 退溪를 拜謁.	周世鵬이 豊基군수時 白雲洞서원을 창건했을 때, 請學하여 1년이 지나서 돌아옴. 무진년(1568)에 長川서원을 세우고 金安國을 배향함. 退溪拜謁 언급없음. (行狀:後學 李光庭 撰)
270	李閔樑	1516-1589	杏巖	禮安		登門 金富仁, 黃俊良, 吳守盈, 琴蘭秀와 가깝게 교유함. <書>	
271	金廷憲	1516-1573	訥巖	奉化		登門	
272	李宗仁					遊門<祭>	
273	林芸	1517-1572	瞻慕堂	安義	瞻慕堂集	서울집에서 拜謁, 質疑. 다시 陶山으로 拜謁. <詩·書>	학문에 있어서 師友淵源은 없고, 가정에서 얻은 것이 많았음 退溪가 서울에 있을 때 누차 拜謁, 질의하였으며, 陶山에서도 拜謁하였음. (行狀:表姪 李侁 撰)
274	任鼎臣	1512-?	西河			禮安에서 6년간 가르침을 받음.(受業으로 간주) <挽詩>	
275	李衍樑			禮安		遊門 (李閔樑의 弟)	
276	琴應商		定省齋	禮安		遊門 易東서원 창건時 재정 보조를 함.	
277	李令承	1527-1605	東巖	醴泉		寒樓庵으로 拜謁, 質疑. 鄭琢, 宋福基와 도의교를 맺음	
278	李陽元	1526-1592	鷺渚	京	鷺渚遺事	李仲虎에게 배우다가 退溪에게 登門. 鄭述와 도의교를 맺음 <書·詩>	학업은 스스로 이룸 어려서 李仲虎의 문하에서 공부함. 退溪登門 언급없음. (行狀:女婿 成泳 撰)
279	權義叔	1537-1583	梅溪			早遊門	
280	金得礪	1529-1580	潛溪	安東			
281	蔡應龍	1530-1584	秋月軒	大丘		弱冠에 拜謁.	
282	徐仁元	1531-1606	博約堂	永川		遊門	
283	尹斗壽	1533-1601	梧陰	京	梧陰遺稿	먼저 成守琛, 李仲虎에게 배우고 정묘년(35세)에 서울집에서 拜謁, 質疑 <祭>	일찍이 成守琛에게 大意를 의뢰고, 李仲虎에게 質疑를 하였음. 퇴계배알, 질의에 관해 언급없음 (神道碑銘: 崔岊 撰)
284	沈義謙	1535-1587	巽庵	京		<書·詩>	
285	宋鉉	1517-1556		星州		먼저 李彥迪에게 入門, 후에 서울집으로 退溪 拜謁 <書>	

286	黃遂良		錦岡	豊基	(黃俊良의 弟) 〈書〉	
287	金夢龜	1545-?	華栖	新寧	巖棲軒에서 拜謁.	
288	辛弘祚		伊溪	醴泉	(退溪의 甥姪) 〈祭〉	
289	洪聖民	1536-1594	拙翁		拙翁集 〈挽詩〉	(傳記資料 없음)
290	金夢得	1521-?	下巖		〈祭〉	
291	曹大中	1549-1590	鼎谷	和順	먼저 柳希春에게 受學. 후에 서울집으로 退溪 拜謁, 講論.	
292	尹敬	1551-1612	竹窓	京	먼저 奇大升, 禹性傳, 趙穆 에게 從學, 후에 退溪 門下에 出入함	
293	李士純	1552-?	芝窩	禮安	〈書〉	
294	康崙			安東	〈祭〉	
295	俞大脩	1546-1586		杞溪	〈祭〉	
296	朴民獻	1516-1586	樽軒	忠州	〈祭〉	
297	徐崐	1529-?	春軒	安東	〈祭〉	
298	朴頤				〈祭〉	
299	朴大立	1512-1584			〈祭〉	
300	姜翰		錦春堂	安東	錦春堂實記 〈詩序〉	(傳記資料 없음)
301	權敏義		遜窩	安東	〈詩序〉	
302	襄三近	1537-1600	汝勇	安東	弱冠에 入門 (退溪의 從孫婿, 襄三益의 弟) 〈詩〉	
303	權暻	1545-1602	松窩	安東	遊門 心經, 易學啓蒙을 배움	
304	李元晦	1511-1587	東嶽	禮安	가정에서 詩, 禮를 배움. (退溪의 族姪)	
305	李希程	1532-1612	龜溪	安東	隴雲精舍에 머물며 글을 배움	
306	李憲			禮安	가정에서 배움. (李宜의 弟)	
307	李仁福	1534-1615	虎溪	禮安	早登門 (退溪의 族孫)	
308	李鸞	1527-1592	思峯	禮安	가정에서 배움 (退溪의 다섯째 兄 澄의 子)	
309	李善道		永慕堂	寧海	書質 (李宗道の 弟)	

※ 이상은 1854년에 陶山書院에서 간행된 甲寅本 『陶山及門諸賢錄』(계명대 한문학연구회刊)을 기초로, 門人錄에 기록되어 있는 師承關係 자료와 각 門人의 文集에 기술되어 있는 師承關係 자료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門人錄 정리 과정에서 다른 판본(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刊)과 비교하였으며, 權五鳳 박사의 『陶門諸子便覽』을 참고하였다. 223번의 金允明은 성균관대본에는 金允欽으로 되어 있다.